

GIST GTI

과학기술응용연구단 (GIST Technology Institute) 조직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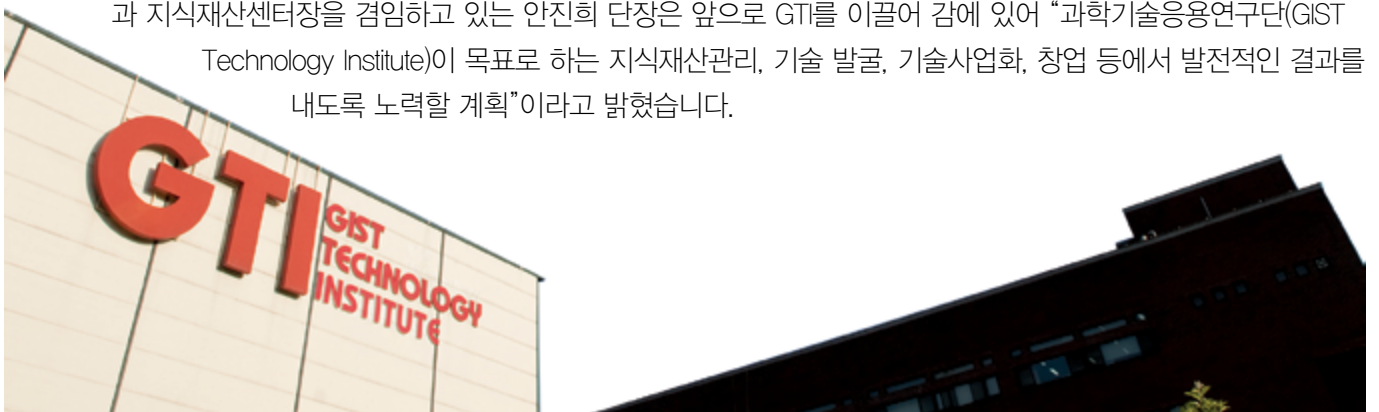
▶ GTI, 기업경영전략팀 · 지식재산센터 · 창업진흥센터로 새롭게 발돋움하다

과학기술응용연구단(이하 GTI)은 광주과학기술원의 기초연구역량을 산업에 접목하여 실용화 및 사업화 단계로 연계·지원하는 시스템 구축과 실용화 기술을 공급하는 기술허브 구축을 위해 2005년 1월 설립 되었습니다. GTI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창출되는 기초 연구결과의 기술 분석, 기술수요 예측 및 시장분석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핵심기술 실용화 전략을 기획하고 실용화 개발 및 사업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GTI가 2016년 조직구조에 큰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기존 부총장 산하에서 GIST연구원 산하로 소속 개편과 더불어 기술사업화센터의 경영전략팀이 '기업경영전략팀'으로 분리되고, 기술사업화센터의 조직명칭이 '지식재산센터'로 변경되면서 GTI는 기업경영전략팀, 지식재산센터, 창업진흥센터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지식재산센터는 세계적인 실용화 전문센터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발돋움하며, 창업진흥센터는 차별화 된 창업보육시스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변화의 바람과 더불어 지난 9월 7일 GTI '안진희 단장'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응용연구단장과 지식재산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안진희 단장은 앞으로 GTI를 이끌어 감에 있어 "과학기술응용연구단(GIST Technology Institute)이 목표로 하는 지식재산관리, 기술 발굴, 기술사업화, 창업 등에서 발전적인 결과를 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이전 우수사례 시리즈 <2> 나눔테크(주)

▶ 누구나 손쉽게 사용가능한 자동심장충격기

기업명	나눔테크(주)
기술명	보급형 자동심장충격기 개발 기술
연구책임자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김기선 교수

(주)나눔테크는 첨단의료기기 전문 제조 회사로 기술이전 이후 GIST 김기선 교수 연구팀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공동 개발하여 제품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AED 관련 6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급성 심정지, 심장이상기류, 심장의 산소공급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환자의 심장상태를 분석하고 전기충격을 통해 심장 리듬을 되살려 주는 심폐소생응급 구조장비이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간단한 조작법을 통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쉽게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나눔테크는 2010년과 2011년 자동심장충격기 국내조달 판매 1위를 달성하는 등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 현재는 전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40개국에 수출을 진행하고, 꾸준히 의료기기 해외인증을 획득하는 등 차별화된 기술력과 마케팅 전략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에는 호남권 의료기기 기업 중 처음으로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18년까지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강한 중소 의료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eartSaver 저출력심장충격기

초기5분의 응급처치로 구하는 소중한 생명
심장마비는 빠른대처가 우선입니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GIST-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네트워킹데이 개최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미래 신산업창출 기획과제' 10개 선정과제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13인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관계자 10인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책임자-전문기관 기획과제 매칭 · 향후 GIST-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간 지속적 협력 관계 구축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과제 컨설팅 수행 전략 발표 · 분야 및 전문기관별 업무추진체계 및 일정 논의

지난 8월 4일 GTI에서 'GIST-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네트워킹데이'가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2016년 미래 신산업창출 기획과제'에 선발된 10개 과제의 책임자와 전문기관의 기술 및 시장 전문가를 분야별로 매칭하고, GIST와 전문가간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자리로 (주)웍스, 한미르특허법률사무소, (주)아이피온, 특허법인 이상, (주)날리지바인, (주)이디리서치, (주)지비에스테크놀로지, (주)비투원파트너스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2016년 미래 신산업창출 기획과제'는 미래 유망기술 중 사전 기획과정을 통해 신산업창출이 가능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 및 평가를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행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 IT(정보통신), NT(나노기술), ET(환경기술), BT(바이오기술)에 해당하는 분야별 전문기관을 섭외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술에 대해 전문기관은 컨설팅 수행 전략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선발된 전문기관은 기획과제 책임자와 업무추진체계 및 일정 등에 대해 개별미팅 및 논의를 거쳐 매칭을 진행하였다.

현재 활발한 협업을 통해 과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추후에 미래 신산업창출이 가능한 실용화과제로 발굴되어 차세대 제품 개발 및 신산업창출에 건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GIST-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네트워킹데이 1



GIST-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네트워킹데이 2

GIST 스타트업

실전 창업을 위한 도약의 현장! GIST Sprint for Start-up 프로그램 협약식

▶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가득한 GIST의 대표 학생주도 모의창업 프로그램

GIST의 대표적인 학생주도 모의창업 프로그램인 'GIST Sprint for Start-up(GSS)'의 2016년도 협약식이 창업진흥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창업진흥센터는 GIST 대학(원)생들의 창업활성화와 도전적인 창업문화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GSS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4~15년도에 총 10개 팀에 각 1,000만원을 지원하여 대학(원)생들의 창업아이템 검증과 시제품 제작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8개 팀에 각 500만원을 지원하여 창업아이템 고도화와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GSS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사업아이템을 검증한 학생들은 실전 창업을 위해서 Campus CEO Challenge와 같은 실전창업 프로그램에 연계지원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학생 중, 2016년 GIST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소재공학부 이선규 박사과정생도 참여하여 자신의 기술창업아이템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올해 프로그램 참여한 GIST 대학생들은 과감하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피력하고, 발표평가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에 눈에 띈다. 대학원생 선배들의 기술노하우와 아이템에 밀려 우위를 점하지는 못했지만 대학생들의 도전정신은 눈여겨 볼만하다. 향후 GIST 대학생들의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GIST 창업문화를 조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GIST 기술창업을 위한 Tech to Market 시동

- ▶ 2016년 10월 11일, Tech to Market 시동
- ▶ GIST의 연구성과물을 시장으로 이전하기 위한 기술사업화의 첫 걸음

2016년 4월 GIST 연구실의 기술(Tech)과 연구 성과물을 시장(Market)으로 이전하기 위해 최초로 기획된 'Tech to Market' 프로그램이 최종 선정평가를 진행하였다.

창업진흥센터는 'Tech to Market' 사업이 GIST에 처음 기획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초기에는 프로그램 안내와 내용 홍보에 집중하였다. 지난 5~6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GIST 연구실 단위로 사업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GIST 소속 교원 및 연구원 각자에게 메일링을 진행한 결과 총 20개 연구실에서 사업 기획서를 제안 받았다. 사업 기획서를 제안한 각 연구실에는 사업계획서 수립비 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계획서를 고도화하기 위해 별도의 창업캠프(8월)와 사업계획서 보완 집중 멘토링(9월~10월)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최종 5팀을 선발하기 위한 발표평가가 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창업진흥센터 2층 회의실에서 펼쳐졌다. 이번 발표평가에는 GIST의 연구실 기술이 가미된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해 TIPS 운영사 중 한 곳인 퓨처플레이 투자심사역과 벤처포트 대표 등 기술사업화 전문가 5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기술창업으로 한발 더 다가가게 될 최종 선정 팀은 전문가의 자문과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 멘토링을 지원 받을 예정이다.

